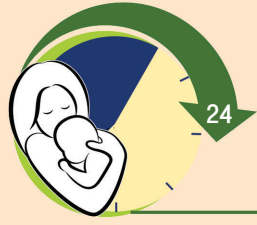


# 직장과 가정 사이 ‘일하는 엄마’로 산다는 것



##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 프롤로그

지난해 광주·전남 맞벌이가 45만 가구를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에서 오랜 기간 ‘주 양육자=엄마’라는 공식이 내려왔지만, 최근에는 부부가 공평하게 육아 부담을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일하는 엄마’ 즉 ‘워킹 맘’(Working Mom)으로 사는 것은 매일 치르는 시험과 같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숨 가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지만 ‘이게 맞나’ 하며 자신을 의심하는 날이 늘어간다. 하지만 일하며 얻는 성취감과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기쁨은 ‘일하는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일 것이다.

광주일보 ‘엄마 기자’들은 첫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는 워킹 맘의 시선으로 육아 일상을 그려낼 예정이다. 그에 앞서 맞벌이가 흔하지 않았던 1980년대 두 자녀를 키워낸 엄마와 ‘코로나동아’를 낳은 89년생 엄마를 만나 육아 후기를 들어봤다.

## “먹고 사느라 함께 못해 준 미안함 손주 황혼 육아하며 원 풀고 있죠”



1980년대 아이 키우라 일하러 힘들었던 남북남씨는 황혼 육아와 취미 생활을 하며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다.

### 80년대 맞벌이 남북남씨

가난했던 시절, 생때같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밥맛없이 일했지만 예순을 넘긴 노모의 가슴에는 늘 ‘못해준 것들’만 남아 있다. 남북남(66) 씨가 3년 전 밥벌이를 접고 인생 2막으로 ‘황혼 육아’를 시작한 이유다.

“어린이날이면 다들 놀러 가는데, 엄마는 왜 항상 일만 해?” 먹고사는 게 전부였던 어느 날, 어린 딸이 던진 한마디는 지금도 박 씨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딸은 불혹을 넘겼지만, 어린 딸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저려온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못 해준 것들, 손주 보면서 다 해주고 싶어요. 하원하고 오면 살갑게 인사해주고, 성탄절 같은 날엔 통닭도 시켜주고요.”

남 씨가 ‘할마(할머니+엄마)’로 변신하는 시간은 매일 오후 3시다. 딸의 집으로 향해 맞벌이 부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집안일을 하나둘 해낸다. 밀린 빨래와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8살 손주가 집에 들어선다. 이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손주까지 돌아오면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된다. 첫째와 둘째가 어느 정도 자라 손이 덜 가는 것만으로도 그는 한숨을 돌린다. 아이들 밥을 챙기고 씻기고 재워 집으로 돌아오면 어느새 밤 9시. 남 씨는 “어릴 때부터 몸 써가며 일한 게 몸에 배어 고단함도 잘 모르겠다”며 웃어 보였다.

그의 삶은 늘 노동의 연속이었다. 1980년대, 살림 밀전 없이 결혼한 그는 만삭의 몸으로도 일을 놓을 수 없었다. 첫째를 낳고 사흘 만에 다시 일터로 나섰다. 남편 시댁이 있는 전북 고창에서 방 한 칸짜리 신혼집을 꾸리고 하루하루 살림을 불려나

갔다. 아이들과 오순도순 지내기에 삶이 너무 팍팍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농협 공판장에서 중매인 일을 했다. 여유가 없던 시절, 둘째를 임신한 몸으로 첫째를 등에 업고 물건을 따라 다닌 날도 있었다. 새벽부터 고창 공판장을 시작으로 광주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각화동 공판장을 돌며 과일과 생선을 트럭에 싣고 마을마다 팔았다.

대여섯 살 아이들은 집 근처 교회 어린이집에 맡겼다. 이웃집처럼 정이 오가던 곳이라 아이들 뺨까지 챙겨주니 마음 놓고 일을 나설 수 있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첫째는 둘째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과 집을 오가며 동생을 돌봤다. 이제 돌이켜 보니, 그 교회마저 없었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 남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에서 경험을 쌓은 뒤,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기로 자격을 취득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겼고, 이후 20여 년간 요양보호사로 현장을 지켰다. 전문적인 직업의식과 소명을 갖고 일해왔지만, 결국 그는 경력을 내려놓고 황혼 육아의 길로 들어섰다.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아이들이 사고 한 번 안치고 알아서 잘 자라줬어요. 엄마로서 완벽하진 못했지만, 내 힘으로 먹이고 입히고 책임졌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어요.”

남 씨의 마지막 꿈은 ‘음악 봉사’다. 그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오전 시간에는 드럼과 기타를 배우고 있다”며 “먹고살기 바빴던 세월이 끝나고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정신없이 바쁘지만 아이는 삶의 기쁨 일하는 멋진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일하는 엄마’ 7년 차 김묘정씨는 주말·휴일에는 꼭 아이와 밖에 나가 추억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다.

### 89년생 ‘워킹맘’ 김묘정씨

지난 27일 찾은 태리네 집은 일곱 살 꼬마가 예쁜 꿈을 키워가는 놀이터처럼 느껴졌다. 거실 벽에는 TV 대신 연갈색 피아노와 뽀빠이가 가득 찬 책장이 눈에 띄었다. 냉장고에는 ‘매일 일기 쓰기’ ‘양치질하기’ 등 태리의 굳은 다짐이 정성 들인 글씨로 붙어 있었다.

2020년 2월 ‘코로나동아’로 태어난 태리에게 엄마 김묘정(36)씨는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태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또래와 어울리게 할 수도 없어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다.

“코로나 시국에 엄마는 일해야 했기 때문에 태리는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gapyeong을 피하려고 등원을 꺼리던 시기였죠. 모바일 앱 알림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태리를 보면 미안함이 더욱 커졌어요. 사진 속 태리의 표정을 살피며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매일 조마조마했습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김씨는 퇴근 후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 잠든 모습을 마주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대인 지원을 나가야 할 때 태리는 엄마 없이 주말을 보내야 했다.

아이를 키우면서 김씨가 깨달은 건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태리가 태어나기 전에 재미를 붙였던 운동은 아직 시작도 못 했어요. 딸을 돌보느라 제 여유 시간은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대신 제가 태교하던 시기에 즐겼던 피아노 연주의 재미를 태리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답니다.”

식구가 한 명 늘면서 기쁨이 배가되는 때도 많았

다. 김씨는 또래 자녀가 있는 동료들과 1박 캠핑을 다니거나 동창들과 주말 공동 육아를 하며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 이어지는 유치원 겨울방학을 맞아 김씨는 머리가 복잡해진다. 남편과 하루 이틀씩 번갈아 휴가를 내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겨울방학을 ‘버텨낼’ 생각이다.

내년 태리의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김씨는 근심이 쌓이고 있다. 주어진 육아휴직을 모두 써서 아이의 초등학교 등교를 함께 하기에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유치원 하원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태리를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다. 시가는 사는 곳과 멀리 있어서 손 벌리기 쉽지 않다. 김씨는 최근 친정과 가까운 곳에 보금자리를 옮겼다.

김씨 가족에게 둘째 계획은 ‘일단 보류’다. 맞벌이 부부에게 다자녀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대학 교직원인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 키우기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도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1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온 김씨는 올해 새로운 부서에서 새 출발을 한다. 겪어보지 않은 업무를 시작할 마음에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부서원과 동료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았기에 앞으로 후배들에게 ‘일하는 엄마’의 모범을 보여줄 포부도 세웠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여곡절이라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지만 딸 태리에게 ‘일하는 엄마’의 멋진 모습으로 남고 싶어서 오늘도 기운을 냅니다. 똑똑하고 세심하고 사려 깊은 우리 딸이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달라지는 출산·양육 정책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인구절벽이 심화하면서 아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공동체·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새해를 맞아 출산·양육 가정을 위해 현금성 지원 강화와 보육·육아 환경개선 시책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첫째 출생 때만 주던 축하 상생카드(50만원권)를 2025년 1월1일 이후 탄생한 둘째 이상(1세가 되는 날)에게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산모에게 주는 ‘광주형 산후조리비’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40명→1150명) 금액이 출생아당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오는 6월부터는 동남권에 있는 공공심아어린이병원(광주 기독병원)이 서·광산구권에 신규 운영된다.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자정까지 소아 전문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할 때 지원하던 기존의 출생 축하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렸다. 광산구 주민이라면 둘째 출산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아기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육아용품을 살 수 있도록 20만원이 든 선불카드

## 광주시, 탄생 축하 상생카드 둘째 이상에도 지급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여수·광양 추가 총 7곳

를 준다. 셋째 이상 가정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사·군 출생기본소득은 ‘전남·사·군 출생기본소득’으로 이름이 바뀐다. 지급 요건도 출생신고 때부터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뒀야 하는 것이 완화됐다. 출생신고 때 보호자 1인 이상 전남 주소를 유지하고, 지급 신청 때부터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출생기본소득은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매달 20만원씩 18세까지

주고 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수와 광양에 추가로 문을 열며 총 7곳(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등)이 운영된다. 목포 미즈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은 내년 개원한다. 주당 이용료는 기존 77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전화 예약을 받았던 것과 달리 ‘전남아이톡’에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